

2017년 4월 26일

투자전략 Daily

• 계량분석

내수 업종 후보 검증 - 유통 1순위

• 중화권 증시 동향

중국 증시 투자심리 소폭 개선되며 강세 전환

• 전일 시장 특징주 및 테마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티웨이홀딩스 외 5개 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파트론 외 5개 종목

• 산업/기업분석

반도체, 항공, 아모레G, 아모레퍼시픽, 컴투스, 한국전력, LG하우시스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캘린더

전략 총괄 | 노근환 ☎ 3276-6226
투자 전략 | 박소연 ☎ 3276-6176
시황 분석 | 김대준 ☎ 3276-6247
계량 분석 | 안혁 ☎ 3276-6272
파생 / ETF | 강송철 ☎ 3276-6181
스몰캡 전략 | 정훈석 ☎ 3276-6232
해외주식 | 백찬규 ☎ 3276-6280
중국 시장 | 최설화 ☎ 3276-6274
신흥국/원자재 | 서태종 ☎ 3276-6184
글로벌 기업 | 정희석 ☎ 3276-6277
자산배분전략 | 정현종 ☎ 3276-6191
경제 분석 | 박정우 ☎ 3276-6229
채권 분석 | 오창섭 ☎ 3276-6174
해외채권 | 박승진 ☎ 3276-6560
크레딧 | 김기명 ☎ 3276-6206

주요 증시 지표 및 주체별 거래 동향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4/19(수)	4/20(목)	4/21(금)	4/24(월)	4/25(화)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2,138.40	2,149.15	2,165.04	2,173.74	2,196.85	
	등락폭	-10.06	10.75	15.89	8.7	23.11	
	등락종목	상승(상한)	376(0)	445(1)	424(3)	287(0)	534(0)
		하락(하한)	412(0)	329(0)	356(0)	509(0)	255(0)
	ADR	103.34	104.53	103.04	102.80	103.00	
	이격도	10 일	99.89	100.41	101.09	101.31	102.04
		20 일	99.35	99.90	100.65	101.01	102.01
	투자심리	40	50	60	70	80	
	거래량	(백만 주)	344	268	282	375	273
	거래대금	(십억 원)	4,893	5,133	4,838	4,403	4,785
코스닥	코스닥지수	635.99	635.8	634.96	626.62	632.57	
	등락폭	1.26	-0.19	-0.84	-8.34	5.95	
	등락종목	상승(상한)	540(3)	452(2)	490(0)	227(1)	785(2)
		하락(하한)	546(0)	636(0)	606(0)	902(0)	304(0)
	ADR	103.26	103.24	103.08	101.73	102.66	
	이격도	10 일	101.46	101.34	101.18	99.74	100.51
		20 일	102.30	102.02	101.67	100.18	100.97
	투자심리	70	60	50	50	50	
	거래량	(백만 주)	814	875	701	709	804
	거래대금	(십억 원)	3,595	3,696	3,201	3,080	2,947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가증권	매수	1,818.6	2,007.9	928.4	273.5	91.3	148.1	129.0	12.7	273.9	35.8
	매도	2,186.4	1,359.3	1,209.4	581.7	109.4	230.8	70.9	8.1	208.6	35.6
	순매수	-367.8	648.6	-281.0	-308.2	-18.1	-82.7	58.2	4.6	65.3	0.2
	4월 누계	-883.1	470.1	216.9	173.6	-52.9	-233.7	109.9	-22.1	242.0	196.0
	17년 누계	-3,569.4	5,950.5	-4,731.0	-2,373.8	-488.0	-2,741.7	177.3	-376.3	1,071.4	2,349.9
코스닥	매수	2,577.7	246.6	115.2	21.3	7.1	28.8	17.0	1.8	39.2	15.7
	매도	2,631.5	185.0	121.2	29.9	9.9	36.6	21.9	2.1	20.8	17.5
	순매수	-53.8	61.6	-6.0	-8.6	-2.7	-7.7	-4.9	-0.3	18.4	-1.8
	4월 누계	-232.0	292.0	352.6	36.0	43.5	41.7	64.8	9.8	156.9	-412.5
	17년 누계	1,433.9	343.6	-1,210.1	-299.6	-274.7	-412.7	-59.1	-25.7	-138.3	-567.5

내수 업종 후보 검증 - 유통 1순위

2017년 Target KOSPI	2,260pt
12MF PER	9.47배
12MF PBR	0.95배
Yield Gap	8.9%P

- ▶ 퀀트 관점에서 내수업종 투자 매력 분석
- ▶ 투자매력: 유통 > 건강관리, 호텔/레저 > 음식료, 화장품/의류
- ▶ 5월 퀀트 포트폴리오 제시

최근 내수 업종 강세 두드러져

■ 내수 업종 후보 검증

지난 한 달간 내수 업종과 수출주도 업종의 희비가 엇갈렸다. WISEfn의 WI26 업종 기준 수익률 상위 5개 업종에 화장품/의류(10.8%), 유통(10.5%), 호텔/레저(8.1%) 등이 포진한 반면, 수익률 하위 5개 업종에는 자동차(-11.1%), 철강(-9.0%), 조선(-6.5%) 등이 이름을 올렸다<표 1>.

<표 1> 최근 1개월 수익률 상위/하위 업종

수익률 상위 top 5 업종		수익률 하위 top 5 업종	
업종	최근1개월 수익률(%)	업종	최근1개월 수익률(%)
화장품/의류	10.8	자동차	-11.1
유통	10.5	철강	-9.0
호텔/레저	8.1	조선	-6.5
음식료	7.1	증권	-6.0
건강관리	6.5	에너지	-3.0

주: WI26 업종 기준
자료: WISEfn, 한국투자증권

퀀트 관점에서 내수 업종 투자전략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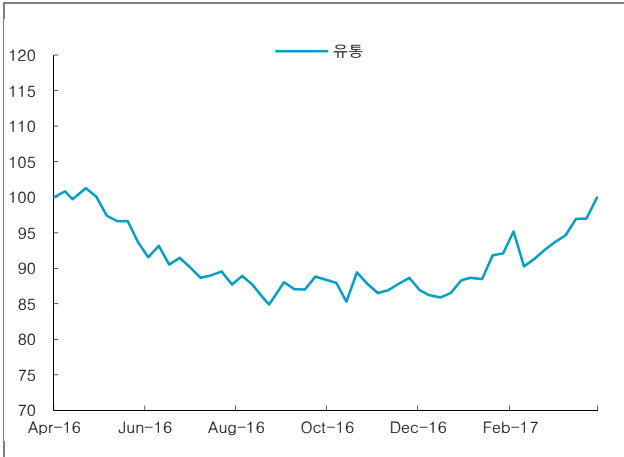
그렇다면 최근 내수 업종의 강세는 그 동안 내수 부진과 사드(THAAD) 이슈 등으로 짓눌렸던 내수 업종 주가가 반등하는 계기가 될 것인가? 우리는 전통적인 퀀트 분석 방법인 1) 지수와 이익 추정치 변화 추세와 더불어 2) PBR-ROE 경로분석을 이용해 주요 내수 업종에 대한 투자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지수와 이익 추정치 변화

지수 관점 분석:
유통 - 연초부터 반등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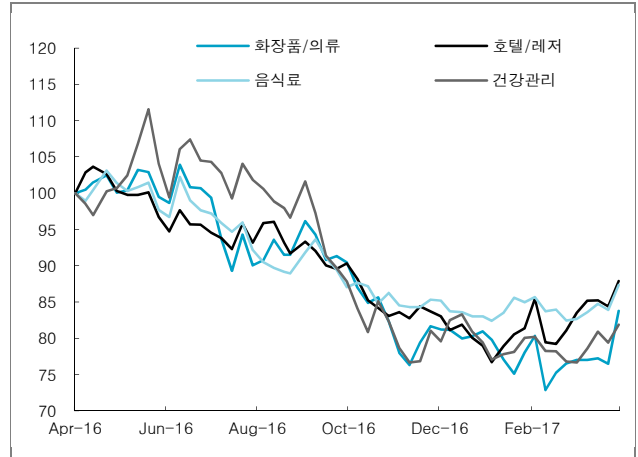
지수 관점에서 <표 1>의 주요 내수 업종 주가를 분석해 보면, 1) 바닥을 충분히 다지고 연초부터 반등한 업종과 2) 최근 바닥을 다지는 과정에서 반등하기 시작한 업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유통 업종이고[그림 1], 후자에 해당하는 업종은 유통을 제외한 다른 내수 업종이다[그림 2].

[그림 1] 연초부터 반등한 내수 업종



자료: WiseFn, 한국투자증권

[그림 2] 최근 반등하기 시작한 내수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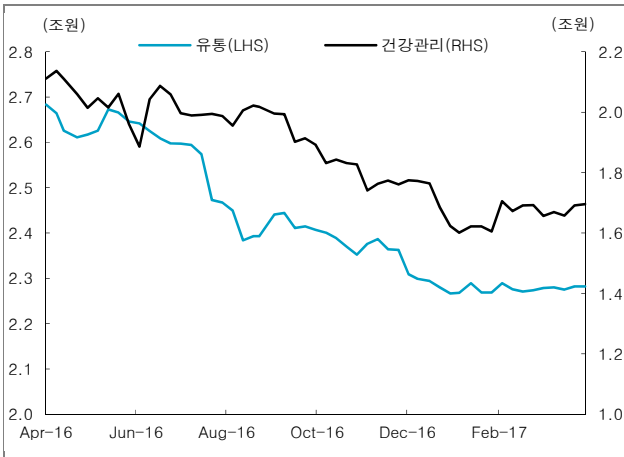
자료: WiseFn, 한국투자증권

예상 순이익 추세:

유통, 건강관리 - 이익 하향 추세 멈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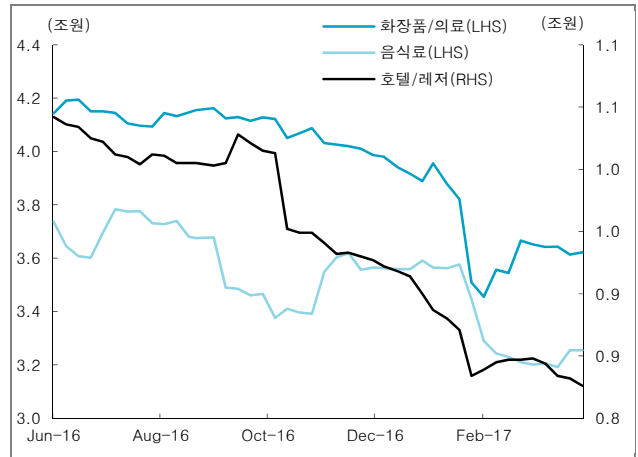
업종 별 2017년 순이익 변화 추세를 보면 상향 추세가 나타나는 업종은 없는 가운데, 1) 이익 하향 추세가 멈춘 업종과 2) 이익 하향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업종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에 해당하는 업종은 유통과 건강관리이고[그림 3], 후자에 해당하는 업종은 화장품/의류, 음식료, 호텔/레저 등이다[그림 4].

[그림 3] 이익 하향추세가 멈춘 내수 업종



자료: WiseFn, 한국투자증권

[그림 4] 이익 하향추세가 지속되는 내수 업종



자료: WiseFn, 한국투자증권

■ 2. PBR-ROE 경로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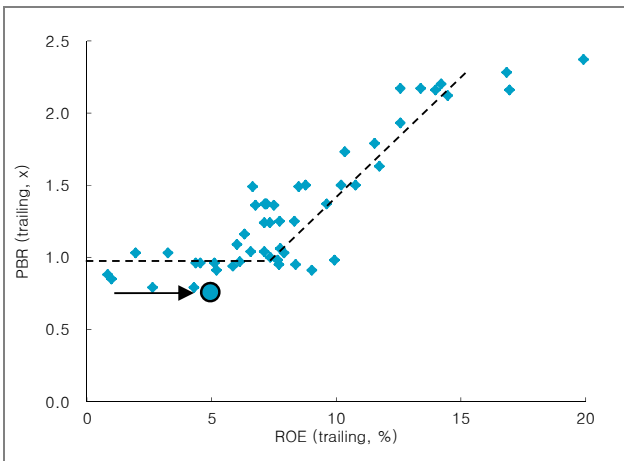
PBR-ROE 경로분석도
유통 업종이 가장 매력적

매매전략을 세우는데 효과적인 우리의 PBR-ROE 경로분석 모델로 내수 업종을 분석해 볼 때 가장 매력적인 업종은 콜옵션 매수 패턴을 보이고 있는 유통 업종이다. 유통 업종은 현재 ROE가 상승하면서 멀티플 확장 변곡점에 다가가고 있어 하락 위험(downside risk)은 적고 상승 잠재력(upside potential)은 높다[그림 5].

이익 상황이 전제되어야 할
화장품/의류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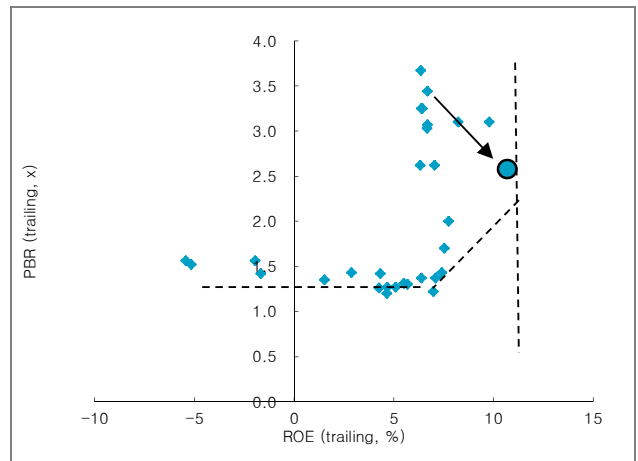
화장품/의류 업종은 ROE 10%를 의미 있게 돌파하지 못하면서 밸류에이션이 낮아지는 과정에 있다[그림 6]. 이 패턴에서는 ROE가 유의미하게 상승하지 못하면 밸류에이션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실적이 개선되고 추정이익이 상향 추세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 공격적인 투자를 피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림 5] 유통 업종의 PBR-ROE 경로



자료: WiseFn, 한국투자증권

[그림 6] 화장품/의류 업종의 PBR-ROE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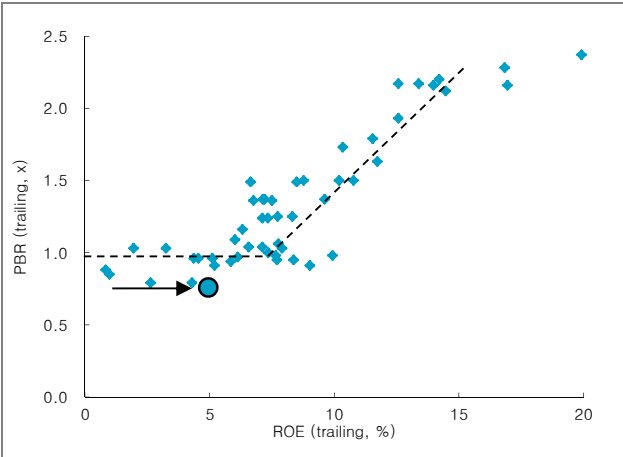


자료: WiseFn, 한국투자증권

PBR-ROE 밴드 하단에 있어
하락 위험이 적은 호텔/레저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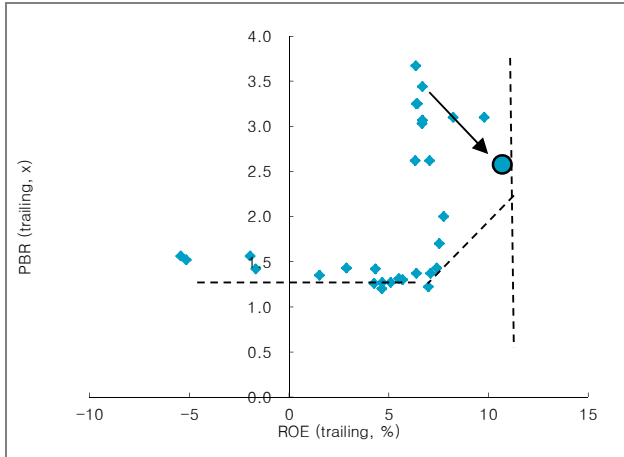
호텔/레저와 음식료 업종은 PBR과 ROE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보이지 않지만, PBR과 ROE의 상하단이 존재해 경로가 큰 사각형 안에 형성되는 패턴을 보여준다. 이 패턴에서는 PBR, ROE의 하단에서 매수하고 상단에서 매도하는 전략이 적절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호텔/레저 업종은 PBR과 ROE의 최하단에 위치해 하락 위험이 적어 투자 매력도 높은 반면[그림 7], 음식료 업종은 PBR, ROE의 중간에 놓여 있어 투자매력이 높다고 할 수 없다[그림 8]. 한편, 건강관리 업종은 무작위 패턴을 보여 PBR-ROE 경로로 판단할 수 없다.

[그림 7] 호텔/레저 업종의 PBR-ROE 경로



자료: WiseFn, 한국투자증권

[그림 8] 음식료 업종의 PBR-ROE 경로



자료: WiseFn, 한국투자증권

종합 투자 매력:
 유통 > 건강관리, 호텔/레저 >
 음식료, 화장품/의류

전통적인 퀀트 분석과 PBR-ROE 경로분석을 종합했을 때, 내수 업종 중 투자매력이 가장 높은 업종은 유통이다. 주가가 연초부터 반등했고, 이익 하향추세가 멈췄을 뿐만 아니라 멀티플 확장 변곡점에 다가가고 있어 하락 위험은 적고 상승 잠재력이 높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는 건강관리와 호텔/레저 업종의 투자매력이 높다. 건강관리 업종은 이익 하향추세가 멈췄으며, 호텔/레저 업종은 PBR-ROE 밴드 하단에 놓여 있어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다. 음식료, 화장품/의류 업종은 이익 하향추세가 멈출 때까지 공격적인 투자는 적절치 않다.

■ 퀀트 포트폴리오

모델 포트폴리오 (2017년 5월)

• 포트폴리오 성격

- 인핸스드 인덱스(BM: KOSPI200)
- 대형주를 중심으로 투자하는 기관투자자에게 적합

5월 퀀트 모델 포트폴리오로 내수 업종 전략(1페이지), 업종 내 룡쫂 추세(6페이지), 한국투자증권의 매수종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표 2>와 같이 제안한다.

▶ 편입: SK이노베이션, 모두투어, 이마트, 코스맥스, 영원무역, 보령제약, LG이노텍

▶ 제외: GS, 강원랜드, BGF리테일, 힐라코리아, 한국콜마, 녹십자, 원익PS

<표 1> 퀀트 모델 포트폴리오(2017년 5월)

업종	세부업종	종목코드	종목명	투자 비중 (%)	시가총액 (십억원)	주가 (원)	수익률 1개월 (%)	밸류에이션(2016F)				업종 비중(% , %p)		
								PER (x)	PBR (x)	EPS증가율 (%)	ROE (%)	BM	MP	차이 (MP-BM)
에너지	에너지	A096770	SK이노베이션	2.0	14,933	161,500	-1.2	7.0	0.8	28.8	12.6	2.3	4.0	1.7
		A010950	S-Oil	2.0	10,932	97,100	1.0	8.8	1.6	5.6	19.9			
소재	화학	A004000	롯데정밀화학	3.0	969	37,550	-0.3	13.8	0.8	흑전	6.3	8.8	6.0	-2.8
	금속/기타소재	A005490	POSCO	3.0	22,974	263,500	-5.4	8.7	0.5	98.4	6.4			
산업재	건설	A000210	대림산업	3.0	2,753	79,100	-3.9	7.5	0.6	53.6	8.8	10.9	11.0	0.1
		A009540	현대중공업	2.0	12,540	165,000	-5.4	15.1	0.7	52.6	5.2			
	운송	A034020	두산중공업	2.0	2,534	23,800	-4.6	15.8	0.8	흑전	5.1			
		A086280	현대글로벌비스	2.0	5,344	142,500	-7.2	9.2	1.4	17.8	17.1			
경기소비재	자동차	A000880	한화	2.0	2,800	37,350	4.8	6.9	0.7	-9.9	12.2			
		A005380	현대차	3.0	31,169	141,500	-13.7	7.4	0.5	0.8	8.1	10.8	12.5	1.7
		A161390	한국타이어	2.0	7,271	58,700	6.0	8.8	1.1	-5.9	13.8			
	미디어/레저 유통	A204320	만도	2.0	2,179	232,000	-8.8	10.0	1.3	9.0	14.8			
		A080160	모두투어	2.0	499	39,600	6.5	21.3	3.8	44.1	23.3			
		A027410	BGF리테일	3.5	5,128	103,500	-2.4	23.6	4.7	17.7	23.4			
필수소비재	일반소비재	A192820	코스맥스	3.0	1,477	147,000	8.1	30.5	6.1	29.4	23.1	7.8	9.0	1.2
		A111770	영원무역	3.0	1,569	35,400	10.8	11.0	1.1	28.3	11.3			
	음식료	A005180	빙그레	3.0	696	70,700	3.8	18.6	1.1	30.0	7.2			
건강관리	건강관리	A003850	보령제약	2.0	444	50,200	2.6	6.4	1.6	1,053.0	34.8	1.7	2.0	0.3
금융	은행/기타금융	A086790	하나금융지주	4.0	10,730	36,250	-7.3	7.1	0.4	16.7	6.9	13.0	10.5	-2.5
		A138930	BNK금융지주	2.0	2,982	9,150	-2.7	5.5	0.4	7.4	8.1			
	증권 보험	A005940	NH투자증권	2.0	3,433	12,200	-5.4	13.3	0.8	17.6	6.0			
		A005830	동부화재	2.5	4,885	69,000	9.5	9.4	1.0	-0.8	12.5			
IT	소프트웨어	A035420	NAVER	1.5	26,238	796,000	-8.7	28.7	5.2	24.4	25.9	39.0	41.0	2.0
		A035720	카카오	1.5	6,149	90,800	8.0	56.9	1.8	81.0	3.1			
	하드웨어	A005930	삼성전자	28.0	283,328	2,014,000	-2.9	9.3	1.3	61.1	18.9			
		A000660	SK하이닉스	4.0	37,419	51,400	3.8	5.0	1.2	155.5	31.4			
		A034220	LG디스플레이	3.0	10,663	29,800	1.4	4.7	0.7	149.6	17.5			
		A011070	LG이노텍	3.0	3,171	134,000	-3.6	14.2	1.7	4,704.8	13.4			
통신서비스	통신서비스	A017670	SK텔레콤	2.0	20,106	249,000	-4.2	10.4	1.0	16.3	12.2	3.2	2.0	-1.2
유틸리티	유틸리티	A036460	한국가스공사	2.0	4,186	45,350	1.3	11.3	0.4	흑전	4.0	2.4	2.0	-0.4
포트폴리오 평균(합계)				100.0			-3.2	8.0	1.2	50.8	14.3	100.0	100.0	0.0
벤치마크(KOSPI200) 평균							-1.6	9.3	1.0	24.0	11.0			

주: 1. 2017년 4월 21일 기준
 2. 벤치마크: K200 (벤치마크 특성에 따라 유통비율을 고려한 업종 비중 적용)
 3. 밸류에이션: WiseFn 컨센서스
 4. 삼성전자 보통주로만 투자비중 구성이 어려울 경우 우선주가 대안이 될 수 있음
 자료: WiseFn, 한국투자증권

〈표 2〉 퀀트 모델 포트폴리오 성과

연도	수익률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간
2015	퀀트 모델 포트폴리오(%)		1.22	4.16	2.19	-3.12	-0.97	-0.09	-3.13	-0.28	6.22	-2.01	-0.67	3.52
	벤치마크(K200) (%)		0.63	2.31	3.55	-2.26	-3.12	-3.15	-4.71	1.68	5.37	-2.07	-1.58	-3.36
	초과수익률(%p)		0.59	1.85	-1.36	-0.86	2.15	3.06	1.58	-1.96	0.85	0.06	0.91	6.88
2016	퀀트 모델 포트폴리오(%)	-4.16	1.93	7.01	-1.45	0.07	-1.07	5.10	1.46	0.32	-1.67	-0.13	2.53	9.93
	벤치마크(K200) (%)	-3.44	1.09	4.79	-0.27	0.07	0.21	3.01	2.14	0.24	-0.61	-0.65	2.26	8.83
	초과수익률(%p)	-0.72	0.84	2.22	-1.18	0.00	-1.28	2.09	-0.68	0.08	-1.07	0.52	0.27	1.10
2017	퀀트 모델 포트폴리오(%)	2.47	2.10	3.90	0.46									8.93
	벤치마크(K200) (%)	3.11	0.73	3.92	0.47									8.23
	초과수익률(%p)	-0.64	1.37	-0.02	-0.01									0.70

주: 1. 퀀트 모델 포트폴리오는 <Korea Quant>가 발간된 2015년 2월 포트폴리오부터 제시
 2. 전월 마지막 거래일 증가에 매수해 당월 마지막 거래일 증가로 청산 가정
 자료: 한국투자증권

롱숏 포트폴리오 (2017년 5월)

• 포트폴리오 성격

- 절대수익형
- 공매도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투자자에게 적합

8페이지에 제시한 <표 A-1>의 롱숏 투자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알파를 기대할 수 있는 퀀트 롱숏 포트폴리오를 <표 4>와 같이 제안한다.

<표 3> 퀀트 롱숏 포트폴리오(2017년 5월)

업종	Long				Short			
	종목코드	종목명	시가총액 (십억원)	수익률 1개월	종목코드	종목명	시가총액 (십억원)	수익률 1개월
에너지/화학	A096770	SK이노베이션	14,933	-3.9	A004430	송원산업	443	-2.1
	A010950	S-Oil	10,819	-3.2	A025860	남해화학	455	-1.1
철강/비철금속	A001230	동국제강	1,045	-18.9	A010130	고려아연	7,840	0.2
	A003030	세아제강	597	2.7	A115390	락앤락	767	-1.1
건설	A047040	대우건설	2,955	3.5	A002380	KCC	3,600	-5.3
	A006360	GS건설	2,265	1.6	A009240	한샘	5,472	5.2
조선/기계	A006260	LS	2,099	2.7	A097230	한진중공업	358	-10.0
	A010620	현대미포조선	1,682	1.6	A112610	씨에스윈드	340	9.8
기타자본재	A003550	LG	11,993	4.0	A028260	삼성물산	24,755	-2.3
기타자본재	A034730	SK	16,886	3.2	A006730	서부T&D	560	5.8
운송	A028670	팬오션	2,753	-8.9	A086280	현대글로벌비스	5,456	-6.4
자동차	A200880	서연이화	372	-7.1	A000270	기아차	14,127	-9.0
자동차	A060980	한라홀딩스	661	-11.6	A005380	현대차	31,169	-16.8
일반소비재	A093050	LF	727	22.7	A090430	아모레퍼시픽	18,561	12.6
일반소비재	A126560	현대에이치씨엔	455	7.7	A021240	코웨이	7,826	16.0
일반소비재	A020000	한섬	770	17.5	A016170	로엔	2,276	8.8
유통	A004170	신세계	2,048	15.6	A035080	인터파크홀딩스	309	11.5
유통	A139480	이마트	6,551	18.1	A138250	엔에스쇼핑	573	1.2
필수소비재	A006040	동원산업	1,108	-1.5	A000080	하이트진로	1,431	0.0
필수소비재	A035810	이지바이오	327	1.9	A005300	롯데칠성	1,957	11.8
필수소비재	A036580	팜스코	477	1.2	A001800	오리온	4,296	11.7
건강관리	A249420	일동제약	448	16.9	A031390	녹십자셀	346	-0.2
건강관리	A085660	차바이오텍	655	-4.1	A095700	제넥신	743	12.0
건강관리	A003850	보령제약	436	1.2	A206640	바디텍메드	439	12.2
은행	A034830	한국토지신탁	771	0.5	A029780	삼성카드	4,495	-2.1
은행	A030190	NICE평가정보	480	3.3	A175330	JB금융지주	911	-1.8
보험	A001450	현대해상	3,227	11.4	A085620	미래에셋생명	819	-11.3
IT하드웨어	A066570	LG전자	11,619	6.1	A084370	유진테크	402	9.7
IT하드웨어	A011070	LG이노텍	3,384	3.3	A064240	홈캐스트	319	-16.5
IT하드웨어	A108230	툽텍	978	4.2	A004130	대덕GDS	307	16.9

주: 2017년 4월 21일 기준
자료: WiseFn, 한국투자증권

〈표 4〉 퀀트 통신포트폴리오 성과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간
퀀트 통신포트폴리오(%)	2014		0.08	2.45	-1.58	3.38	2.84	-3.78	4.42	3.58	-3.10	-2.69	1.15	6.74
	2015	7.25	-4.96	15.09	-1.36	-3.60	3.35	4.93	4.78	-3.36	-3.38	-6.06	4.90	17.57
	2016	5.06	-0.71	-5.07	-0.37	2.28	2.46	1.36	4.65	-1.15	-1.09	0.14	-1.51	6.06
	2017	4.30	1.29	-0.46	0.30									5.44
페어 개수(쌍)	2014		6	8	8	10	11	10	7	7	7	8	7	
	2015	7	10	17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16	2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2017	30	30	30	30									

주: 1. 퀀트 통신포트폴리오는 <Global Quant>가 발간된 2014년 2월 포트폴리오부터 제시 (2015년 2월 포트폴리오부터는 <Korea Quant>에서 제시)
 2. 전월 마지막 거래일 증가에 매수해 당월 마지막 거래일 증가로 청산 가정
 자료: 한국투자증권

** 이 자료는 2017년 4월 26일자로 발간된 <Korea Quant : 내수 업종 후보 검증-유통 1순위>의 요약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자료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제시된 종목들은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또는 계량화된 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중국 증시 투자심리 소폭 개선되며 강세 전환

- ▶ 상해종합지수는 0.2% 상승, 최근 낙폭이 과도했다는 인식 속에 저가매수세 유입
- ▶ 홍콩H지수는 1.6% 상승, 트럼프 랠리에 대한 기대감 확대와 본토자금 유입의 확대가 호재

■ 중국 시장

상해종합지수 0.2% 상승,
양조, 조선, 보안, 가전, 보
험, 시멘트 등의 업종 강세

상해종합지수는 0.2% 상승한 3,135p로 마감하며, 하루 만에 강세로 전환했다. 보합세로 출발한 증시는 장중 좁은 구간에서 등락을 보였다. 거래대금은 1,741억위안으로 직전일대비 12% 감소했다. 최근 금융규제 강화 우려에 따른 낙폭이 과도했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저가매수세가 유입됐다. 또한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서 1,370억위안 규모의 양로기금이 증시로 유입되기 시작됐다고 밝히면서 투자심리가 회복됐다. 다만 여전히 금융당국의 금융 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면서 지수 상승을 제한했다. 한편 1분기 실적 호조 속에 귀주모태(600519.SH)가 5.1% 급등하는 등 양조 업종 강세를 보였고, 그 외에도 조선, 보안, 가전, 보험, 시멘트, 의료기기 등의 업종이 강세를 보였다. 한편 상해증시 대비 낙폭이 컸던 심천성분지수와 차스닥 지수는 각각 0.7%, 0.5% 상승했다. 상승장 속에 외국인들은 중국 A주를 순 매수했고 매수폭은 확대됐다.

■ 홍콩 시장

홍콩H지수 1.6% 상승,
금융, 유틸리티, 에너지, 소
비재 등의 업종 상승

홍콩H지수는 1.6% 상승한 10,272p로 마감했다. 직전일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인 것과 트럼프 대통령이 법인세를 낮출 것을 요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트럼프 랠리의 기대감이 재차 부각된 것이 투자심리를 개선시켰다. 또한 본토증시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본토자금의 유입폭이 직전일 대비 확대된 것이 호재로 작용했다. 업종별로는 금융, 유틸리티, 에너지, 소비재 등이 상승했다. A/H프리미엄은 홍콩 금융주의 상대적 강세 속에 117.8p로 하락했다. 한편 항생지수는 텐센트홀딩스, 교통은행, 중국석화 등 대형주들의 강세 속에 1.3% 상승한 24,456p로 마감했다.

◆ 중국 주요 금융지표 추이

(단위: p, %)

구분	4/25 (화)	전일 대비(%)	5거래일 전 대비(%)	1개월 전 대비(%)	연초 대비(%)
상해종합	3,134.57	0.16	-1.94	-4.13	1.00
심천종합	1,882.86	0.51	-3.27	-8.01	-4.38
차스닥	1,818.87	0.49	-1.59	-7.44	-7.30
홍콩H	10,272.07	1.63	2.28	-1.96	9.34
Shibor 7일물 금리(% , %p)	2.81	0.86	2.03	1.08	10.66
Shibor 1개월 금리(% , %p)	4.01	0.00	0.12	-10.05	21.30
중국국채 3년물(% , %p)	3.20	0.83	2.14	4.92	10.84
위안/달러 고시환율	6.8833	0.23	0.06	-0.02	-0.77
역내 위안/달러	6.8851	-0.01	-0.05	-0.18	0.87
역외 위안/달러	6.8860	-0.03	-0.15	-0.44	1.31

주: 25일 오후 5시 51분 기준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북한 리스크가 완화되며 코스피 연중 최고치 경신

- 뉴욕증시는 프랑스 대선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며 나스닥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3대 지수가 일제히 1% 이상 강세를 보이며 마감. 강보합세로 출발한 코스피는 금융투자, 개인 매도세로 상승폭이 제한되며 장 초반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나 외국인과 연기금 매수세가 확대되며 장 후반 1% 이상 급등,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며 2,200P선에 바짝 다가섬. 전일 급락했던 코스닥도 외국인과 연기금 매수세로 전일 하락분을 대부분 만회하며 1% 강세 속 630P선 회복에 성공. 북한 장군일을 맞아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며 투자심리가 위축되기도 했으나 별다른 징후가 포착되지 않으며 북한 리스크가 다소 완화된 모습
-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비수기임에도 SK하이닉스가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자 삼성전자도 실적 기대감에 3% 이상 강세를 보이며 신고가를 경신했으며, 이에 따른 여파로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동반 강세를 보임. 1분기 영업이익이 1조원을 돌파하며 호조세를 보인 SK이노베이션이 신고가를 경신했으며, 고마진 제품 매출 증가에 따른 수익성 개선 전망에 두산엔진이 급등세를 보임. 또한, 고화질(HD) 햅틱 액추에이터의 미국 수출 소식에 하이소닉이 초강세를 보였으며, 코스피가 2,200P선에 바짝 다가서며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며 업황 호조 기대감에 증권주의 강세가 두드러짐. 반면, 1분기 실적 부진에 아모레G, 아모레퍼시픽이 이들 연속 하락했으며, 파라다이스 시티 개장에도 불구하고 1분기 실적 부진 전망에 파라다이스가 이들 연속 하락세를 이어감

종목/테마	내 용
SK이노베이션(096770) ▶170,000 (+3.34%)	1분기 영업이익 1조 돌파 소식에 신고가 경신 -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20.39%, 18.88%, 51.85% 증가한 11조 3,871억원, 1조43억원, 8,599억원을 기록하는 등 실적 호조 소식에 신고가 경신 - 아울러, 고배당 및 밸류에이션 매력도 긍정적으로 작용
두산엔진(082740) ▶3,520 (+8.64%)	수익성 개선 기대감에 급등세 - 상대적으로 가격과 수익성이 좋은 ME-GI 엔진의 매출 증가에 따른 수익성 개선 기대감에 급등세 - 올해 LNG선의 인도량이 증가하기 시작하며 ME-GI 탑재량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중연료 추진엔진 시장에서 ME-GI 점유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지속적인 실적 성장 기대
증권주	코스피 연중 최고치 돌파에 동반 강세 - 1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코스피가 장중 2,193P까지 상승하며 연중 최고치를 돌파하며 업황 호조 기대감에 강세 - 키움증권(039490, +3.46%), 한화투자증권(003530, +3.27%), 한국금융지주(071050, +3.01%), 메리츠증권(008560, +2.96%), NH투자증권(005940, +2.77%) 등 강세

참고: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로, 추천 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52주 신고가 및 상한가

종목	내 용
매일유업(005990) ▶52,900 (+5.80%)	- 인적분할로 인한 매매거래 정지를 앞두고 신고가 경신
더존비즈온(012510) ▶27,500 (+3.58%)	- 고객군 확대에 따른 성장 기대감에 신고가 경신
케이엠더블유(032500) ▶12,800 (+4.92%)	- 4차 산업혁명 관련 수혜주로 부각되며 신고가 경신. 5G 상용화에 따른 수혜주로 동사는 안테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

단기 유망종목: 티웨이홀딩스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종 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투자 포인트
티웨이홀딩스 (004870)	2,650 (+0.6)	2,635 (4/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공기 대수 증가로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한 수익성 개선 전망 경쟁 저비용항공사 대비 비행기 사용 연차가 낮아 정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고 운영 효율성이 높음 일본과 동남아로의 노선 다양화를 통해 중국 여행객 감소에 따른 피해 최소화로 1분기 실적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예상 실적 기준 PER 5.6배로 저평가 매력 상존
대아티아이 (045390)	2,060 (+2.7)	2,005 (4/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른 정부 투자로 신호제어 및 열차 자동 정지장치(ATP) 수주가 확대될 전망 지하철 1,2호선 노후화에 따른 대규모 보수 공사로 대형 수주 획득 가능성 2009년 이후 지연되고 있던 24조 규모의 GTX(수도권 광역급행열차) 사업 공사가 2018년부터 시작될 전망
해성디에스 (195870)	18,000 (+18.0)	15,250 (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 전장화 추세로 전체 매출의 77%를 차지하는 리드프레임 시장의 성장이 지속되며 초박막팔라듐 기술 우위와 가격 경쟁력이 부각됨. 또한 주요 고객사가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으며 자동차 반도체용 제품이 단가는 높고 물량 변동성은 낮아 안정적인 실적 향상이 전망됨 메모리 기판시장에서 세계 유일의 Reel to Reel(자동연속생산) 기술을 통하여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
에스원 (012750)	97,100 (+8.5)	89,500 (3/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안과 건물관리 결합 판매의 시너지 확대 등으로 1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 달성 전망 삼성전자 팹택공장 및 베트남 공장 건설로 상품판매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가격 인상 효과로 통합보안 매출도 증가할 전망
GS리테일 (007070)	53,000 (+1.7)	52,100 (3/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7년 편의점 신규 출점수는 1,200개로 예상되며 하반기로 갈수록 외형성장과 마진 개선폭이 두드러질 전망 부실점포 정리로 슈퍼마켓 사업부의 영업적자규모는 축소될 전망 1인 가구 증가와 티레·혼밥 문화 확산에 따른 편의점사업의 장기 성장 동력은 여전히 유효
엘엔케이바이오 (156100)	7,900 (-3.2)	8,160 (3/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화 및 비만 인구 증가에 따라 척추임플란트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의 성공적인 진입 이후 본격적인 성장 기대 제품 다각화 차원에서 개발한 무릎 인공관절의 미국 FDA 승인을 앞두고 있으며, 기존 영업망을 이용하여 판매가 가능해 기존사업과 시너지가 클 것으로 예상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제시된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중장기 유망종목: 파트론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십억 원, 배)

종 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7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파트론 (091700)	11,150 (-1.8)	11,350 (4/13)	887	67	51	979	1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갤럭시S8 사전예약이 돌풍을 일으키며 전면 카메라 주요 부품 공급사들의 수혜 예상 - 스마트폰의 스펙 향상과 IoT제품 판매 증가에 따라 센서모듈사업의 성장세는 지속될 전망 - 모듈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동차용 카메라 모듈 시장과 헬스케어 센서 시장으로 본격 진출 예상 				
오텍 (067170)	11,500 (+1.3)	11,350 (4/06)	710	28	11	904	1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대 최저치인 전국 입주 아파트 가구 수와 미세먼지 우려 등으로 기능성 에어컨 설치 및 교체 수요 증가 전망 - 2018년 페럴림픽 참가 선수를 위한 장애인용 버스 및 택시 부족으로 정부의 관련 투자 확대 가능성 - 작년 4월 인수한 오텍오티스 파킹시스템의 안정적인 매출 성장이 가능하며 향후 오텍캐리어 통합빌딩관리 서비스(BIS)와 시너지 효과 기대 				
NAVER (035420)	815,000 (+0.7)	809,000 (3/3)	4,633	1,372	973	32,386	2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스냅챗' 상장에 따라 사진 중심의 메신저인 '스노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예상 - 인공지능경망 기반 통번역 서비스 '파파고'에 이어 웹브라우저 '웨일', 음성비서 '클로바' 등 적극적인 R&D 결과물이 공개되면서 기술플랫폼 업체로서의 성장성이 부각될 전망 				
SK텔레콤 (017670)	249,500 (+7.1)	233,000 (3/3)	17,402	1,773	2,032	28,774	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G 등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에 6조원, AI, 자율주행자동차, 빅데이터 등 차세대 ICT 사업에 5조원, 총 합계 11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힘에 따라 미래 성장동력 구체화 - CEO교체에 함께 M&A위주의 경영전략 변화, SK플래닛 정상화, 연결실적 개선, 지배구조 개편 등의 기대감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씨엠에스에듀 (225330)	27,600 (+4.3)	20,450 (2/7)	66	14	11	2,567	1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부터 수능 영어 평가 방식이 절대평가로 전환돼 변별력이 낮아지고, 주요 대학의 이공계 입시 정원이 확대되어 수학 사교육비가 증가할 전망 - 작년 중국, 태국, 베트남에서 시범적으로 콘텐츠를 공급하기 시작했으며 올해는 본격적으로 공급학교와 학생 수가 확대될 전망. 4%를 상회하는 배당 수익률 예상 				
청담러닝 (096240)	18,300 (+1.1)	18,100 (12/29)	163.1	27.8	15.1	2,194	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대표 영어교육 전문기업으로 오프라인 학원을 직영 및 가맹형태로 운영하며, 콘텐츠 사업과 스마트러닝 기반의 스마트클래스 사업을 운영 - 베트남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 매출 증가세가 지속될 예정이며 2017년부터 중국 온라인에듀케이션과 계약한 솔루션 로열티 수입이 본격화 될 전망 - 영재수학교육을 영위하는 자회사, CMS에듀케이션의 높은 실적 성장세에 주목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NAVER, SK텔레콤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반도체: 2Q17 모바일 디램 가격 상승폭 예상보다 작아

■ 대부분 제품가격 전분기 대비 flat

어제 저녁 디램익스체인지(DRAMeXchange)가 발표한 2분기 모바일 디램 대부분의 제품가격이 전분기대비 변동이 없었다. 가장 high-end 제품인 LPDDR4 48Gb의 가격만 4.0% 상승하고 나머지 제품은 전분기와 같은 가격을 유지했다. 낸드와 묶여 판매되는 eMCP제품의 경우 가장 용량이 큰 LPDDR4 32Gb + 64GB 제품이 2.3% 상승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분기대비 가격이 변동이 없었다. 지난 분기 모바일 디램 제품가격이 5% 수준, eMCP 제품의 경우 10~14%의 상승을 보였던 것과 크게 대비되는 가격 흐름으로 당초 시장의 기대보다도 약한 가격이다.

■ 예상보다 가격 상승폭이 작은 이유는 약한 수요

디램익스체인지가 언급한 가격약세의 이유는 스마트폰 수요의 약세이다. 스마트폰 수요가 약세를 보임에 따라 스마트폰업체들이 부품 재고조정을 하고 이에 모바일 디램의 수요가 예상보다 약해 가격이 더 이상 상승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디램익스체인지는 2017년 스마트폰의 평균 모바일 디램 채용량을 기존 3.7GB에서 3.2GB로 하향조정했다. 2016년 평균 채용량 2.4GB 대비 33% 증가하는 것으로 2016년 증가율 52%보다 크게 낮아지는 것이다. 스마트폰의 평균 모바일 디램 채용량 증가율이 둔화됨에 따라 하반기 모바일 디램 가격은 소폭 하락할 전망이다.

■ 2분기 디램 ASP 상승폭은 한 자리 중반에 그칠 듯

2분기에도 PC 디램과 서버 디램 가격은 상승하겠지만 전체 디램의 mixed ASP는 전분기대비 한 자리 중반 상승에 그쳐 1분기 10% 후반 상승 대비 크게 둔화될 전망이다. PC 및 서버 디램의 재고축적 사이클도 상반기 중 마무리되어 하반기에는 수요 모멘텀 약화가 확대될 것이다. 모바일 디램, PC 디램 및 서버 디램의 수요모멘텀 약화로 하반기 디램업황의 둔화가 예상된다.

■ 낸드와 스마트폰 사업의 업사이드 있는 삼성전자를 반도체업종 top pick으로 제시

디램산업의 경우 스마트폰, PC 및 서버수요 둔화로 디램수요 둔화가 예상된다. 반면 낸드의 경우 SSD수요 증가율이 유지되고 도시바의 메모리사업 매각 추진 영향으로 공급증가율도 예상보다 둔화되고 있어 수급전망이 개선되고 있다. 우리는 낸드사업 비중이 높고 갤럭시S8 판매 강세로 인한 실적 업사이드가 있는 삼성전자에 대해 반도체업종 최선호 주와 목표주가 2,850,000원을 유지한다. 목표주가는 2017년 추정EPS에 목표PER 12배를 적용했다.

*상기 보고서는 2017년 4월 24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항공: 저비용항공 경쟁심화 우려 완화될 전망

■ 신규사업자 우려보다는 수요증가에 주목

저비용항공사(LCC)의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업체간 경쟁 역시 심화되고 있다. 2017년 하계(4월~10월) 운항스케줄 기준 저비용항공사의 국제선 항공운항 수는 전년동기대비 28% 증가했다. 여기에 6개의 신규 저비용항공사가 시장진출을 준비하고 있어 노선경쟁이 치열해 질 전망이다. 그러나 항공여객 수요는 공급확대 이상으로 늘고 있다. 1분기 LCC의 국제선 여객수는 전년동기대비 49% 증가하며 탑승률이 높아졌다. 또 정부는 신규 사업자에 대한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있어 과잉공급에 대한 우려는 완화될 전망이다.

■ 6개 신규 저비용항공사가 사업 준비 중이나

현재 6개의 신규 저비용항공사가 올해말 또는 내년초 운항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가장 먼저 양양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플라이양양이 11월 국제선 운항을 목표로 이르면 이번주 사업면허를 신청할 계획이다. 청주국제공항 기반의 케이에어는 최근 한화그룹으로부터 160억원의 투자를 지원받아 내년초 취항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에어대구, 에어포항 등 4개 LCC가 항공기재 도입 및 사업면허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 정부는 신규사업자 기준을 강화할 방침

반면 정부는 신규사업자에 대한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2월 플라이양양이 신청한 국제항공운송 사업자면허에 대해 재무적 불안정성과 소비자 편익 저해 우려를 근거로 반려했다. 또한 기존 면허조건 중 150억원 이상 자본금 요건을 500억원 이상으로 늘리고 항공운송 경쟁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향후 신규 사업자의 재무건전성과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시장의 경쟁환경 역시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LCC의 시장진출은 당초 계획 대비 지연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완전자본잠식이 됐거나 50% 이상 자본잠식이 3년 이상 지속되는 업체에 대해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내리고, 이후에도 잠식률이 50%를 넘어 3년 이상 지속될 경우 안전영향을 최종 평가해 사업면허를 취소할 방침이다. 티웨이항공과 이스타항공은 2011년 이후 완전자본잠식 상태이다. 그러나 두 업체는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200%와 1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올해 중으로는 완전자본잠식이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해당 규제는 2017년 연간실적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결국 사업초기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한 항공업의 특성 상 재무 규제의 초점은 신규 사업자에 맞춰져 있다.

■ 규모의 경제 선점하는 제주항공 top pick 추천

제주항공에 대해 '매수' 의견과 목표주가 40,000원을 유지한다. 제주항공은 경쟁 우려를 무색하게 만드는 이익증가가 나타날 전망이다. 올해 항공기 수가 30대를 넘어서며 저비용항공사 중 가장 빠르게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10개 분기 연속 순이익을 시현하고 있어 재무규제 강화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이다. 정부의 규제 기조가 과도한 경쟁을 지양하고 있어 LCC 1위로서의 시장지위를 공고히 다질 수 있을 것이다.

*상기 보고서는 2017년 4월 25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아모레G(002790)

매수(유지)

목표가: 157,000원(유지)

종가(4/24): 135,500원

아모레퍼시픽 실적 및 주가와 연동될 전망

■ What's new : 예상을 하회한 영업 실적

1분기 매출액은 전년대비 5.5% 증가한 1.86조원, 영업이익은 10% 감소한 3,790억원(영업이익률 20.4%)에 그쳤다. 영업이익은 우리 예상을 8% 하회, 아모레퍼시픽의 실적 부진 과 더불어 이니스프리와 에뛰드 실적이 예상을 하회했다. 이니스프리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11% 감소한 460억원(영업이익률 23.3%, -4.5%p YoY)에 그쳤고 에뛰드 영업이익도 88억원으로 전년대비 29% 감소했다(영업이익률 10.8%, -4.3%p YoY). 1분기 중국인 관광객 감소(-9.2% YoY) 영향도 있으나 내수 부진과 경쟁 심화가 주요인이다. 지분율이 높은 비 아모레퍼시픽 자회사 부진으로 지배주주순이익은 예상을 20% 하회했다.

■ Positives : 약재는 현실화, 중장기 글로벌 확장 전략, 다양한 성장 잠재력

2017년 3월 중국 내 전면적인 한국 관광 상품 판매 금지 및 중국인 방한 금지에 따라 중국인 관광객 급감이 현실화되고 있다. 3월 중국인 관광객수는 40% 감소, 온기 반영되는 2분기 감소폭은 이보다 클 전망이다. 우리는 중국인 관광객 수가 연간 25%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핵심 자회사인 아모레퍼시픽의 면세점 매출 부진이 불가피하며 이니스프리, 에뛰드 등 중국인 선호도가 높은 브랜드 실적에도 부정적이다. 단 가장 강도 높은 제재가 가시화되면서 예상되는 영향 또한 대부분 현실화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오히려 핵심 자회사인 아모레퍼시픽의 해외 사업은 중국과 동남아에서 고성장이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부터 미국 사업도 본격화된다. 이니스프리와 에뛰드의 글로벌 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수출 및 로열티 매출이 증가할 전망이다. 그 외 색조 브랜드 에스쁘와, 헤어케어 아모스프로페셔널, 의약화장품 및 필러 브랜드 에스트라 매출 호조로 다양한 성장 잠재력 또한 유효하다.

■ Negatives : 국내 증저가 시장 경쟁 심화

국내 증저가 화장품 브랜드들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프리미엄 화장품은 브랜드력과 인하우스 제조 역량을 기반으로 차별화가 이루어지는 반면 증저가 브랜드들은 최근 다양한 제품 구색을 갖춘 H&B 스토어의 부상, 온라인·모바일 채널을 활용하는 다양한 신생 브랜드 등장, 유통업체들의 PB 화장품 강화 등으로 인해 경쟁이 치열하다. 이니스프리와 에뛰드의 경우도 최근 이익 감소뿐 아니라 매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 결론 : 아모레퍼시픽 실적 회복 시점에 주목

아모레퍼시픽, 이니스프리, 에뛰드 실적 전망을 하향, 2017년 및 2018년 지배주주순이익을 각각 11%, 5% 하향한다. 이니스프리와 에뛰드의 내수 실적 모멘텀은 피크를 지나 둔화, 향후 주가는 아모레퍼시픽 실적 및 주가에 연동될 전망이다. 현주가는 2018년 PER 27배로 글로벌 평균 24배보다 높다, 조정 시 '매수' 관점을 제시한다.

(단위: 십억원, %, %p)

	1Q17P				증감률		2017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1,853	1,855	0.1	1,895	18.6	5.5	7,151	7,385
영업이익	413	379	(8.4)	418	181.7	(9.7)	1,078	1,202
영업이익률(%)	22.3	20.4	(1.9)	22.0	11.8	-3.4	15.1	16.3
세전이익	423	354	(16.3)	434	138.9	(17.3)	1,087	1,227
순이익	132	106	(20.0)	139	212.1	(21.9)	324	380

*상기 보고서는 2017년 4월 25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아모레퍼시픽(090430)

매수(유지)

목표가: 330,000원(유지)

종가(4/24): 307,000원

실적 불확실성 피크는 지나가고 있다

■ What's new : 예견된 실적 부진

1분기 매출액은 전년대비 5.7% 증가한 1.57조원, 영업이익은 6% 감소한 3,170억원을 기록, 영업이익은 우리 예상을 7% 하회했다. 국내 부문 수익성 하락에 기인, 영업이익률은 전년대비 2.5%p 하락한 20.2%를 기록했다. 부문별로 국내 화장품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9,413억원(+1.6% YoY)과 2,145억원(-12% YoY, 영업이익률 22.8%, -3.6%pYoY), 해외 화장품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4,770억원(+17% YoY), 881억원(+11% YoY, 영업이익률 18.5%, -1%p YoY), 국내 생활용품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1,631억원(+2.8% YoY), 195억원 (-18% YoY, 영업이익률 12%, -3.1%p YoY)을 기록했다.

■ Positives : 대외 악재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해외 사업

면세점은 전년대비 11% 증가하고 해외 매출액에서 아시아 지역은 19% 성장했다. 1분기 중국인 입국자수가 전년대비 9.2% 감소, 면세점 채널은 해외 면세점과 신규 면세점 효과, 높아진 객단가로 inbound traffic보다는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 연간으로 중국인 입국자수는 전년대비 25% 감소, 면세점 채널 매출액은 전년대비 6% 감소할 전망이다. 성장 동력인 중국과 ASEAN 매출액은 현지화 기준 전년대비 30%대 증가해 양호한 증가세가 지속되었다. 중국 사업은 고성장군 브랜드인 이니스프리, 설화수, 에뛰드가 호조다. 매출의 45%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니스프리' 1분기 말 중국 매장수는 363개로 전년대비 61% 증가해 출점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다. ASEAN 지역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등 성장 시장은 현지 환율 기준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 Negatives : 내수 부진과 외부 악재로 실적 개선은 4분기부터

면세점을 제외한 내수 화장품 매출액은 전년대비 5% 감소했다. 국내 부문 수익성이 전년대비 3.6%p 하락, 경쟁 심화로 인한 내수 부진뿐 아니라 원가율이 높은 제품 호조 등 제품 믹스 악화 영향도 일부 있다. 2분기에는 수익성이 높은 면세점 매출액이 30% 이상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 수익성 하락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국내 부문의 의미 있는 실적 개선은 4분기부터 가능할 전망이고, 이 또한 한한령 완화와 인바운드 관광객 증가가 전제 조건이다. 해외 부문도 미주, 유럽 사업 확대 및 구조 조정으로 단기 수익성 개선은 난망이다. 단, 해외 사업은 미주 이니스프리, 라네즈 브랜드 사업이 금년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장기적으로 글로벌 사업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 결론 : 불확실성 완화와 중장기 성장성 vs 수익성 하락과 낮지 않은 밸류에이션

내수 부진을 반영, 2017년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5%, 6% 하향한다. 그러나 인바운드 관광객 급감이 현실화된 만큼 향후 실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단위: 십억원, %, %p)

	1Q17P				증감률		2017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1,562	1,569	0.4	1,588	19.2	5.7	6,054	6,125
영업이익	339	317	(6.5)	337	210.0	(6.2)	854	922
영업이익률(%)	21.7	20.2	-1.5	21.2	12.4	-2.5	14.1	15.0
세전이익	342	295	(13.8)	343	150.9	(14.7)	858	932
순이익	256	220	(14.0)	265	200.0	(15.0)	641	694

*상기 보고서는 2017년 4월 25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김성은(askim@truefriend.com) ☎ 02-3276-6158

컴투스(078340)

매수(유지)
목표가: 135,000원(유지)
종가(4/21): 120,300원

1Q17 Preview: Input 대비 만족스러운 Output

■ 1Q17 Preview: 마케팅 비용 감소를 통한 수익성 개선 예상

컴투스의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각각 1,259억원(-6.9% YoY, -7.3% QoQ)과 509억원(-14.8% YoY, +15.2% QoQ)으로 추정한다. 예상보다 제한적이었던 실시간 아레나 업데이트 효과로 ‘서머너즈워’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6.9% 감소한 1,010억원에 그칠 전망이지만 공격적인 마케팅 없이도 안정적인 매출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한편 야구 게임들의 장르 다각화로 비수기임에도 스포츠 부문의 실적이 견조한 것으로 파악된다. 마케팅 비용은 2016년말 진행된 글로벌 레벨업 마케팅이 종료됨에 따라 164억원(+0.6% YoY, -42.0% QoQ)으로 감소하며 수익성 개선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서머너즈워’ 장기 흥행 가능 여부에 대한 우려 점차 해소될 전망

‘서머너즈워’ 장기 흥행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시간 아레나’ 업데이트에 따른 매출 순위 상승은 다소 제한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어 진행된 아이템 이벤트 기간 동안 미국 Google Play 순위가 10위권 내에 재진입한 점을 감안할 때 Live Operation을 통한 추가적인 매출 성장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실제로 ‘서머너즈워’ 성장에 대한 우려가 붙어있던 2016년 4분기에도 12월에 진행된 ‘아이템 패키지’ 이벤트를 통해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2분기부터는 실시간 아레나 활성화를 기반으로 한 monetization 요소 추가를 통한 매출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IP 활용 전략 강화를 통한 성장 가능성에 주목

‘서머너즈워’ 및 Activision의 ‘Skylanders’ IP 기반 신규 게임들의 출시가 2018년 상반기로 계획되어 있다. 출시 시점까지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있으나 흥행 IP 활용에 대한 전략이 구체화되었다는 점과 해외 유명 IP를 확보했다는 점은 중장기적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보유 현금을 통한 추가적인 IP 확보 또한 M&A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유효하다.

■ 매수 의견 유지, ‘서머너즈워’의 장기 흥행과 신작 출시 본격화

컴투스에 대한 매수의견과 목표주가 135,000원을 유지한다. 전분기 대비 ‘서머너즈워’ 매출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마케팅의 급격한 감소에도 매출 감소폭은 제한적이다. 공격적인 마케팅 집행과 아이템 이벤트를 통한 추가적인 성장이 가능할 전망이다. 상반기 ‘마제스티아’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히어로즈 워’ 등 다양한 신작들이 출시될 예정이다. 또한 하반기에는 2018년 상반기 출시가 예정된 대작들에 대한 기대감도 점차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DY (%)
2015A	434	166	126	10,721	49.7	169	11.1	6.4	3.0	35.0	-
2016A	513	192	152	12,014	12.1	195	7.3	2.7	1.7	26.5	1.6
2017F	548	204	160	12,830	6.8	207	9.4	4.0	2.0	22.8	1.2
2018F	659	255	200	16,057	25.2	257	7.5	2.6	1.6	23.4	1.5
2019F	728	282	223	17,871	11.3	284	6.7	1.7	1.3	21.5	1.6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상기 보고서는 2017년 4월 24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한국전력(015760)

매수(유지)

목표가: 54,000원(유지)

종가(4/24): 44,300원

1Q17 Preview: 감익구간 진입

■ 1분기 영업이익 27.5% 감소 추정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각각 15조 7,459억원, 2조 6,151억원으로 추정한다.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0.4% 늘어나지만, 영업이익은 27.5% 줄어드는 것이다. 예상 매출액이 전년동기와 유사한 이유는, 산업용 전력수요 증가에 힘입어 전력판매량(Q)은 전년동기대비 1.6% 증가했으나 지난 12월 누진제 개편으로 평균판매단가(P)가 1.7% 낮아졌기 때문이다. 반면 작년에 크게 오른 유연탄 가격이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33.4% YoY), 발전 연료비가 13.3%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1분기 평균 SMP가 90원/kWh로 전년동기와 유사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전력구입량이 늘어, 전력구입비는 전년동기대비 10.2%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한전)의 1분기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된다(표 1).

■ 올해 실적은 상저하고, 하지만 석탄발전기 가동률이 주요 변수

올해 국내 발전설비용량이 13% 늘어나는데 그 중 49%가 기저발전설비(원전+석탄발전)다. 기존의 전력거래제도에 변화가 없어 원전과 석탄발전 가동이 LNG발전에 항상 우선한다면, 하반기로 갈수록 기저발전기의 발전비중은 높아져 한국전력(한전)의 이익은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지난 3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기저발전 중심의 전력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4/11字 ‘정책 변혁, 다가오는 발전용 LNG의 봄’ 보고서 참조). 그리고 대선이 가까워지며 후보들의 ‘기저발전 축소’ 공약이 구체화 되고 있다(표 3). 다만 단기간에 전력거래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기는 어려워, 당분간은 석탄발전기 가동률을 조절하는 방법이 대안이 될 것이다. 특히 석탄발전기 가동률을 낮추는 공약은 지금처럼 공급예비율이 높게 유지되는 상황(20% 이상)에서는 도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하반기에는 구체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석탄발전기 가동률 제한이 정책에 반영되는 속도가 실적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 단기 모멘텀 부재, 긴 호흡으로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

‘매수’의견과 목표주가 54,000원을 유지한다. 현재 주가는 2017년 PBR 0.4배 수준으로 올해 ROE가 8.3%임을 감안하면 매수하기에 부담은 없다. 다만 단기간에 크게 기대할 만한 모멘텀이 없어 당분간은 유가, 석탄가격, 원/달러 환율에 맞춰 주가가 등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기 정부의 구체적인 전력정책이 파악될 올해 하반기부터는 서서히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다. 또한 요금제도를 개선하기 우호적인 현 상황(하향안정화 된 원자재 가격, 대선후보들의 요금제도 개선 의지)을 감안하면, 향후 ‘구입비 연동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 긍정적이다. 긴 호흡으로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DY (%)
2015A	58,958	11,347	13,289	20,701	382.5	19,688	2.4	4.3	0.5	22.1	6.2
2016A	60,190	12,002	7,049	10,980	(47.0)	20,963	4.0	3.7	0.4	10.2	4.5
2017F	60,072	10,390	6,188	9,639	(12.2)	19,969	4.6	3.7	0.4	8.3	4.5
2018F	61,283	10,017	5,909	9,204	(4.5)	19,661	4.8	3.6	0.4	7.5	4.5
2019F	60,533	8,725	4,943	7,700	(16.3)	18,391	5.8	3.6	0.3	5.9	4.5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상기 보고서는 2017년 4월 24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LG하우시스(108670)

매수(유지)

목표가: 140,000원(유지)

종가(4/24): 101,000원

1등 인테리어 업체에 시총 1조원 이하는 싸다

■ What's new : 건자재 호조 VS 자동차 부진

1분기 영업이익은 20% 감소하며 우리의 추정과 유사했다. 건자재 매출은 무려 21% 증가했으나 PVC와 MMA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영업이익률은 0.4%p 하락했다. 소재 영업이익은 현대기아차 전방 부진의 충격으로 52% 급감했다. 매출의 35%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하는 만큼 외화환산손실 약 65억원이 발생했다.

■ Positives : 건자재 매출 증가로 높은 레버리지 효과

지난 1년간 PVC 가격이 12% 상승하는 등 원자재 가격상승의 부담이 컸던 분기다. 그럼에도 건자재 매출이 큰 폭 증가하며 비용 부담을 상쇄했다. 최근 PVC창호 등의 품목에서 가격 인상을 시도하고 있어 원자재 가격상승이 마냥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비수기임에도 창호 매출 내 B2C 비중은 40%로 상승, 매출 믹스를 개선시키는 요인이다. 작년 4분기부터 가동한 미국 엔지니어드스톤 2호라인 가동률도 이미 60%대로 올라서 1,2호라인 평균 가동률은 80%대다. 중설라인은 신제품 개발에 할애하고 있어 실제 풀가동 상태다. 2호라인 가동으로 올해 500억원의 매출 증가를 예상한다. 건자재는 2014년부터 고성장 중인데 B2C와 해외비중 확대를 감안하면 건자재는 한동안 강한 성장 드라이버임에 분명하다.

■ Negatives: 현대기아차 부진의 충격, 최악은 지나

현기차의 판매량 감소가 직격탄이었다. 국내 자동차 전방의 개선은 요원하다. LG하우시스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최근 c2i의 M&A를 마무리하고 경량화소재 개발에 힘쓰고 있다. 아직 c2i를 지분법으로 인식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올해 c2i 매출은 400억원 이상으로 예상하며 영업이익률 8%대를 보이는 회사라, 어떤 방식이든 향후 LG하우시스의 실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장기적으로 c2i의 탄소섬유 기술과 결합해 자동차 부품의 경쟁력 제고와 유럽진출이 예상된다. 자동차 부품은 작년 5월부터 본격 악화됐고 작년 4분기부터 미국 자동차원단 공장도 가동하기 시작해 현재 가동률 50%대로 올라섰다는 점에서 향후 자동차 소재가 추가적인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다.

■ 결론: 주거뿐 아니라 차량 인테리어의 1등 업체로

향후 주택공급은 재건축/재개발 위주로 이뤄지고 LG하우시스는 조합 선호도가 높은 브랜드다. 따라서 LG하우시스의 매출은 단순 주택공급량과는 비탄력적으로 움직이며, 견조한 성장이 예상된다. 반면 밸류에이션은 역사적 최저인데 자동차소재는 최악을 지나고 있다는 점이 포인트다. 국내외 건자재의 성장이 전사 실적과 주가를 견인할 것이다. 그간 모호했던 자동차 소재 사업도 c2i 인수와 그룹 차원의 전기차 사업 접근으로 방향성은 뚜렷해졌고 불확실성은 점차 견고하고 있다. 대부분의 제품에서 1~2위인 인테리어 업체를 시총 1조원 미만에서 싸게 살 기회다. Top pick을 유지한다.

(단위: 십억원, %, %p)

	1Q17P				증감률		2017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719	748	4.0	719	(6.8)	13.1	3,118	3,138
영업이익	34	34	(0.1)	39	30.3	(19.6)	167	168
영업이익률(%)	4.7	4.6	-0.1	5.4	1.3	-1.9	5.3	5.4
세전이익	24	21	(13.4)	29	1.0	(40.8)	132	136
순이익	18	13	(28.8)	20	4.5	(42.2)	99	101

*상기 보고서는 2017년 4월 24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4/19(수)	4/20(목)	4/21(금)	4/24(월)	4/25(화)	
유 가 증 권	종합주가지수	2,138.40	2,149.15	2,165.04	2,173.74	2,196.85	
	등락폭	-10.06	10.75	15.89	8.7	23.11	
	등락종목	상승(상한)	376(0)	445(1)	424(3)	287(0)	534(0)
		하락(하한)	412(0)	329(0)	356(0)	509(0)	255(0)
	ADR	103.34	104.53	103.04	102.80	103.00	
	이격도	10 일	99.89	100.41	101.09	101.31	102.04
		20 일	99.35	99.90	100.65	101.01	102.01
	투자심리	40	50	60	70	80	
	거래량	(백만 주)	344	268	282	375	273
	거래대금	(십억 원)	4,893	5,133	4,838	4,403	4,785
코 스 닥	코스닥지수	635.99	635.8	634.96	626.62	632.57	
	등락폭	1.26	-0.19	-0.84	-8.34	5.95	
	등락종목	상승(상한)	540(3)	452(2)	490(0)	227(1)	785(2)
		하락(하한)	546(0)	636(0)	606(0)	902(0)	304(0)
	ADR	103.26	103.24	103.08	101.73	102.66	
	이격도	10 일	101.46	101.34	101.18	99.74	100.51
		20 일	102.30	102.02	101.67	100.18	100.97
	투자심리	70	60	50	50	50	
	거래량	(백만주)	814	875	701	709	804
	거래대금	(십억원)	3,595	3,696	3,201	3,080	2,947

◆주체별 당일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 가 증 권	매수	1,818.6	2,007.9	928.4	273.5	91.3	148.1	129.0	12.7	273.9	35.8
	매도	2,186.4	1,359.3	1,209.4	581.7	109.4	230.8	70.9	8.1	208.6	35.6
	순매수	-367.8	648.6	-281.0	-308.2	-18.1	-82.7	58.2	4.6	65.3	0.2
	4월 누계	-883.1	470.1	216.9	173.6	-52.9	-233.7	109.9	-22.1	242.0	196.0
	17년 누계	-3,569.4	5,950.5	-4,731.0	-2,373.8	-488.0	-2,741.7	177.3	-376.3	1,071.4	2,349.9
코 스 닥	매수	2,577.7	246.6	115.2	21.3	7.1	28.8	17.0	1.8	39.2	15.7
	매도	2,631.5	185.0	121.2	29.9	9.9	36.6	21.9	2.1	20.8	17.5
	순매수	-53.8	61.6	-6.0	-8.6	-2.7	-7.7	-4.9	-0.3	18.4	-1.8
	4월 누계	-232.0	292.0	352.6	36.0	43.5	41.7	64.8	9.8	156.9	-412.5
	17년 누계	1,433.9	343.6	-1,210.1	-299.6	-274.7	-412.7	-59.1	-25.7	-138.3	-567.5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도
	순 매 수		
증권	8,945	미분류	-41,502
운수창고	2,490	서비스업	-25,330
철강금속	443	전기전자	-24,410
NH투자증권	5,506	KODEX 레버리지	-21,114
롯데쇼핑	3,221	KODEX 200	-16,326
삼성증권	2,920	삼성전자	-15,846
한국금융지주	2,830	SK	-5,402
현대글로비스	1,730	SK하이닉스	-5,224

	연 기 금		순 매 도
	순 매 수		
서비스업	26,932	화학	-6,746
미분류	14,028	음식료	-3,783
증권	12,697	전기가스	-2,402
SK	13,265	LG생활건강	-6,639
TIGER 200	11,892	SK하이닉스	-5,634
삼성전기	9,930	오리온	-4,248
SK이노베이션	7,860	GS건설	-3,153
NH투자증권	7,785	아모레G	-3,015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도
	순 매 수		
전기전자	1,395	미분류	118,170
운수장비	1,194	기타금융업	-538
화학	890	유통업	-526
KBSTAR 200선물인버스2X	3,336	KODEX 레버리지	102,109
ARIRANG 우량단기채권	2,172	TIGER 200	-8,368
LG디스플레이	1,869	TIGER 레버리지	-5,362
KODEX 인버스	672	TIGER 유로스탁스50(합성,H)	-4,164
현대차	588	KODEX 200	-2,045

	보 험		순 매 도
	순 매 수		
증권	6,772	전기전자	-8,713
운수장비	2,251	서비스업	-8,673
운수창고	1,983	음식료	-4,473
KBSTAR 고배당	10,240	KBSTAR 200	-10,102
롯데케미칼	3,855	SK하이닉스	-6,502
NH투자증권	3,188	아모레G	-5,118
삼성중공업	2,768	KODEX 코스닥 150	-4,715
TIGER 200 철강소재	2,143	NAVER	-4,104

◆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도
	순 매 수		
증권	28,878	전기전자	-178,013
철강금속	12,232	서비스업	-28,584
보험업	8,300	화학	-26,818
KODEX 레버리지	31,469	삼성전자	-146,194
NH투자증권	19,957	SK하이닉스	-43,052
SK이노베이션	17,460	NAVER	-22,020
KB손해보험	15,121	KODEX 인버스	-17,911
롯데쇼핑	13,009	신한지주	-13,279
삼성전기	12,675	KODEX 200선물인버스2X	-12,648
고려아연	9,651	아모레G	-12,453
SK	8,648	LG생활건강	-12,152
에이블씨엔씨	7,304	현대차	-11,432
S-Oil	6,631	한국전력	-11,221

	외 국 인		순 매 도
	순 매 수		
전기전자	379,568	보험업	-25,448
서비스업	93,556	화학	-5,546
기타금융업	63,400	통신업	-817
삼성전자	295,678	아모레퍼시픽	-13,283
SK하이닉스	35,807	삼성생명	-11,492
현대차	32,414	현대제철	-9,995
KB금융	25,282	한화생명	-5,625
NAVER	24,235	KB손해보험	-5,476
현대모비스	18,622	효성	-4,334
신한지주	16,475	롯데케미칼	-4,189
LG디스플레이	15,703	키움증권	-3,965
LG전자	15,247	롯데쇼핑	-3,567
고려아연	14,852	호텔신라	-3,494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디지털컨텐츠	1,637	IT부품	-2,446	반도체	7,422	디지털컨텐츠	-807
반도체	1,532	방송서비스	-2,323	방송서비스	5,904	음식료,담배	-392
통신장비	700	계약	-1,590	인터넷	2,635	통신장비	-363
서울반도체	2,415	CJ E&M	-2,668	CJ E&M	5,519	NHN박스	-1,846
NHN박스	1,925	휴젤	-2,137	SK머티리얼즈	2,711	와이솔	-820
유진기업	691	피에스케이	-1,230	카카오	2,635	고영	-518
테스	605	모두투어	-1,003	테스	1,204	테스나	-514
메디톡스	600	에스에프에이	-827	더블유게임즈	1,102	에스에프에이	-439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반도체	296	기계,장비	-1,625	인터넷	789	계약	-1,069
오락,문화	283	음식료,담배	-75	디지털컨텐츠	418	방송서비스	-1,059
화학	149	방송서비스	-43	화학	168	기계,장비	-403
JYP Ent.	280	에프엔에스테크	-1,760	카카오	789	CJ E&M	-1,171
SK머티리얼즈	216	매일유업	-74	SK머티리얼즈	554	메디톡스	-704
메지온	80	월덱스	-57	NHN박스	423	AP시스템	-535
리드코프	77	CJ E&M	-42	오션브릿지	394	제이스텍	-414
세원물산	76	에스티아이	-22	테스	292	디엔에프	-367

◆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반도체	6,823	계약	-5,582	반도체	10,502	인터넷	-6,082
인터넷	4,681	기계,장비	-3,855	통신장비	6,235	방송서비스	-1,466
디지털컨텐츠	2,588	IT부품	-2,870	기계,장비	5,554	교육	-47
카카오	4,821	휴젤	-4,348	메디톡스	2,683	카카오	-5,794
SK머티리얼즈	4,254	에프엔에스테크	-2,189	컴투스	2,568	셀트리온	-3,794
서울반도체	3,514	셀트리온	-1,817	동국S&C	2,491	파라다이스	-2,142
SKC코오롱PI	1,899	에스에프에이	-1,739	SKC코오롱PI	2,204	인터플렉스	-1,805
동국S&C	1,371	모두투어	-1,546	홈캐스트	1,953	웹젠	-1,640
테스	1,234	매일유업	-1,300	주성엔지니어링	1,850	비에이치	-895
더블유게임즈	1,097	CJ E&M	-1,192	에스에프에이	1,621	CJ E&M	-888
AP시스템	1,043	피에스케이	-1,121	SK머티리얼즈	1,475	안랩	-816
NHN박스	1,038	리노공업	-1,058	매일유업	1,424	뷰웍스	-636
동국제약	835	파라다이스	-1,054	텔콘	1,415	사람인에이치알	-628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수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KOSDAQ			
기 관		외 국 인		기 관		외 국 인	
삼양통상	33 일	세이브존I&C	23 일	대우스팩2호	16 일	리노공업	37 일
태영건설	25 일	삼정펠프	22 일	유성티엔에스	15 일	SIMPAC Metal	20 일
WISCOM	24 일	대원제약	19 일	심택	12 일	클리오	19 일
조선내화	24 일	광주신세계	18 일	동부제4호스팩	10 일	누리텔레콤	15 일
대웅	23 일	일성신약	17 일	이글루시큐리티	10 일	지트리비엔티	13 일
계룡건설	19 일	KPX그린케미칼	13 일	에이치엔티	9 일	씨젠	12 일
유한양행	18 일	부산가스	12 일	인터로조	9 일	원일특강	12 일
다우기술	17 일	유성기업	12 일	제우스	9 일	인크로스	11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수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KOSDAQ			
기 관		외 국 인		기 관		외 국 인	
KB손해보험	109,964	SK하이닉스	177,075	카카오	36,000	휴젤	36,048
KODEX 레버리지	84,492	NAVER	72,535	SK머티리얼즈	8,599	컴투스	8,746
롯데쇼핑	74,719	LG전자	61,425	서울반도체	8,067	디오	6,265
KODEX 200	37,558	LG생활건강	60,275	파라다이스	6,156	APS홀딩스	5,536
삼성전기	25,363	신한지주	50,453	인바디	5,217	덕산네오룩스	5,028
에이블씨엔씨	24,809	한국항공우주	44,434	연우	4,914	모두투어	4,677
NH투자증권	24,500	하나금융지주	40,665	비아트론	3,649	매일유업	4,551
아모레퍼시픽	24,044	현대모비스	40,518	유니테스트	3,598	서울반도체	4,505

◆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종 목	KOSPI			KOSDAQ			
	기 관	외 국 인	합 계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증권	28,878	4,162	33,040	반도체	6,823	10,502	17,325
철강금속	12,232	1,378	13,610	금속	2,476	3,488	5,964
건설업	341	12,782	13,123	화학	1,451	4,069	5,520
KODEX 레버리지	31,469	3,978	35,448	SK머티리얼즈	4,254	1,475	5,729
SK이노베이션	17,460	7,489	24,949	서울반도체	3,514	688	4,202
고려아연	9,651	14,852	24,503	SKC코오롱PI	1,899	2,204	4,103
LG디스플레이	5,962	15,703	21,665	동국S&C	1,371	2,491	3,862
삼성전기	12,675	6,646	19,321	주성엔지니어링	290	1,850	2,141
S-Oil	6,631	5,922	12,553	이지바이오	631	1,220	1,851
두산밥캣	950	9,327	10,278	제넥신	576	957	1,532
SK	8,648	683	9,331	더블유게임즈	1,097	288	1,385
에이블씨엔씨	7,304	1,142	8,446	테스	1,234	32	1,267
삼성증권	74	7,246	7,320	루트로닉	28	1,068	1,097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함께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도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새론오토모티브	37 일	SK네트웍스	23 일
태광산업	31 일	세아특수강	17 일
코오롱글로벌	26 일	진양화학	12 일
대한전선	24 일	KR모터스	12 일
한국전력	21 일	키움증권	10 일
SJM홀딩스	17 일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10 일
한양증권	17 일	한일철강	10 일
E1	16 일	TIGER 레버리지 코스닥150	8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PN풍년	27 일	골프존	29 일
효성오앤비	21 일	제이씨케미칼	20 일
엔브이에이치코리아	20 일	룽투코리아	20 일
KG이니시스	16 일	아이디스	17 일
SIMPAC Metal	15 일	포스코엠텍	17 일
동양파일	13 일	넥슨지티	16 일
메가스터디교육	13 일	다산네트웍스	12 일
휴맥스홀딩스	13 일	피제이메탈	10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도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NAVER	-35,537	삼성전자	-38,536
한국전력	-34,858	KODEX 200	-29,306
KODEX 200선물인버스2X	-30,294	한국전력	-28,366
KODEX 인버스	-29,957	롯데케미칼	-23,247
SK하이닉스	-29,955	KB손해보험	-21,611
엔씨소프트	-29,898	현대제철	-17,720
LG화학	-29,340	효성	-16,894
현대모비스	-27,020	기아차	-14,272

KOSDAQ			
기	관	외	국 인
휴젤	-20,781	카카오	-19,437
CJ E&M	-11,631	파라다이스	-12,823
셀트리온	-11,257	셀트리온	-8,962
서부T&D	-6,872	룽투코리아	-8,915
모두투어	-6,300	아프리카TV	-6,018
메디톡스	-6,147	AP시스템	-4,924
피에스케이	-5,176	웹젠	-4,895
인터플렉스	-5,157	CJ E&M	-4,517

◆ 기관/외인 동반 순매도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종 목	KOSPI		
	기	관	외 국 인 합 계
화학	-26,818	-5,546	-32,364
보험업	8,300	-25,448	-17,148
통신업	-8,075	-817	-8,893
아모레퍼시픽	-5,350	-13,283	-18,633
KODEX 인버스	-17,911	-137	-18,048
삼성생명	-5,434	-11,492	-16,925
LG화학	-9,845	-2,742	-12,587
삼성화재	-5,072	-2,839	-7,910
LG유플러스	-1,791	-3,141	-4,932
호텔신라	-1,137	-3,494	-4,631
금호석유	-3,998	-422	-4,420
삼성바이오로직스	-1,558	-2,854	-4,412
금호타이어	-1,837	-2,348	-4,185

종 목	KOSDAQ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제약	-5,582	3,210	-2,371
방송서비스	-328	-1,466	-1,794
인터넷	4,681	-6,082	-1,401
셀트리온	-1,817	-3,794	-5,612
파라다이스	-1,054	-2,142	-3,196
에프엔에스테크	-2,189	-20	-2,210
CJ E&M	-1,192	-888	-2,080
와이슬	-737	-246	-983
이녹스	-474	-332	-806
사람인에이치알	-130	-628	-759
쌍용정보통신	-450	-236	-687
정상제이엘에스	-474	-104	-579
디오	-475	-39	-513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아모레퍼시픽	82	25,371
아모레G	103	14,100
삼성전자	6	13,118
하나금융지주	220	8,659
NAVER	10	8,266
POSCO	29	7,984
LG생활건강	9	7,798
SK하이닉스	138	7,245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89	7,961
카카오	59	5,334
휴젤	5	2,204
파라다이스	119	1,730
디오	36	1,344
인바디	33	916
메디투스	2	909
이오테크닉스	11	886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 대차잔고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3,962	8,169,945
SK하이닉스	61,677	3,231,890
NAVER	2,072	1,678,340
아모레퍼시픽	4,393	1,348,708
하나금융지주	32,705	1,304,926
현대차	8,846	1,251,775
LG생활건강	1,335	1,167,944
POSCO	3,858	1,057,108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29,876	2,655,969
카카오	7,938	716,051
로엔	3,251	291,280
메디투스	547	266,875
바이로메드	2,520	231,884
파라다이스	13,328	191,920
컴투스	1,441	172,366
코미팜	4,882	171,599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 대차잔고 5일간 누적 순증/감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천주)

KOSPI			
순 증		순 감	
운수창고	8,860	기타금융업	-2,325
기계	3,107	건설업	-2,233
전기전자	2,509	화학	-1,982
팬오션	8,155	KB금융	-3,537
SK하이닉스	4,012	대우건설	-1,761
두산중공업	2,775	KODEX 200	-1,194
우리은행	1,110	TIGER 200	-990
맥쿼리인프라	1,092	LG디스플레이	-947
기아차	980	하나금융지주	-902
삼성중공업	874	기업은행	-838
한국전력	873	한국타이어	-828
DGB금융지주	778	KB손해보험	-772
SK증권	744	호텔신라	-722

KOSDAQ			
순 증		순 감	
IT부품	3,921	제약	-551
기계,장비	1,853	인터넷	-541
오락,문화	1,336	음식료,담배	-453
이화전기	2,724	셀트리온	-1,013
파라다이스	1,224	코디엠	-769
유지인트	885	코미팜	-301
SKC 솔믹스	697	AP시스템	-284
서울반도체	576	카카오	-271
파트론	574	보타바이오	-271
KD건설	564	바이넥스	-248
컴투스	529	팜스토리	-242
원익홀딩스	440	바이온	-236
CMG제약	434	알에프텍	-223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거래 주체별 매매 동향

(단위: 십억)

구 분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4/19(수)	4/20(목)	4/21(금)	4/24(월)	4/25(화)
외국인	5,950.5	470.1	1,065.9	-226.2	73.9	234.2	335.5	648.6
기관계	-4,731.0	216.9	70.6	110.4	223.6	89.9	-72.4	-281.0
(투신)	-2,741.7	-233.7	-137.8	-0.3	-66.6	40.2	-28.4	-82.7
(연기금)	1,102.0	262.6	202.9	-51.3	101.1	68.4	12.8	71.9
(은행)	-376.3	-22.1	-2.8	-1.8	4.7	-9.9	-0.5	4.6
(보험)	-488.0	-52.9	-45.6	-2.2	12.6	19.5	-57.5	-18.1
개인	-3,569.4	-883.1	-1,094.0	115.9	-276.1	-316.5	-249.5	-367.8
기타	2,349.9	196.0	-42.6	-0.1	-21.4	-7.6	-13.6	0.2

주: KOSDAQ 제외

◆ 증시 자금 동향

(단위: p, 십억원, %)

구 분	2015	2016	2017	4/18(화)	4/19(수)	4/20(목)	4/21(금)	4/24(월)
KOSPI	1,961.3	2,026.5	2,196.9	2,148.5	2,138.4	2,149.2	2,165.0	2,173.7
고객예탁금	22,695.6	22,754.4	23,756.6	23,272.5	23,434.8	24,112.3	23,854.2	23,756.6
(증감액)	6,853.1	58.8	-22,754.4	562.3	162.3	677.5	-258.1	-97.6
(회전율)	28.8	24.8	31.5	33.0	36.2	36.6	33.7	31.5
실질예탁금증감	7,687.7	-3,211.2	-19,868.7	604.2	-126.5	572.9	-178.3	-368.1
신용잔고(KOSPI)	3,035.6	2,929.1	3,306.8	3,279.7	3,290.0	3,299.9	3,316.0	3,306.8
신용잔고(KOSDAQ)	3,491.2	3,848.7	4,002.2	3,930.4	3,926.9	3,955.8	3,981.9	4,002.2
미수금	151.0	125.6	113.8	103.9	105.6	111.8	116.8	113.8

주1: 실질예탁금 증감=고객예탁금증분+개인순매수-(신용증분+미수금 증분) / 고객 예탁금 회전율=(KOSPI, KOSDAQ 거래대금/고객예탁금)*100
 주2: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KOSCOM

◆ 국내 수익증권 유출입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설정 잔액	연간 누계	월간 누계	4/17(월)	4/18(화)	4/19(수)	4/20(목)	4/21(금)
전체 주식형	68,713	-5,578	-581	29	55	-44	-239	-167
(ex.ETF)		-3,591	-110	4	40	26	-79	-18
국내주식형	51,381	-5,078	-596	27	89	-63	-233	-179
(ex.ETF)		-3,125	-152	2	47	6	-73	-30
해외주식형	17,333	-500	15	2	-33	20	-6	11
(ex.ETF)		-467	42	2	-6	20	-6	11
주식혼합형	8,021	-59	105	4	12	54	10	11
채권혼합형	24,233	-2,302	89	-33	-18	445	-38	-76
채권형	103,143	-1,234	68	-331	-526	112	173	240
MMF	134,386	29,590	16,058	-302	821	119	-693	-441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금융투자협회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주요 이머징마켓 외국인 매매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국가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4/19(수)	4/20(목)	4/21(금)	4/24(월)	4/25(화)
한국	5,138	419	944	-198	65	206	295	576
대만	5,415	33	-213	-360	-19	83	84	-
인도	6,525	-173	89	-88	-17	194	-	-
인도네시아	1,367	744	125	-	102	23	-	-
태국	146	-39	-40	-11	-12	-29	12	-
남아공	-2,632	-179	-108	7	-38	-18	-60	-
필리핀	-189	160	-15	-6	-7	-5	3	-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주요 금리,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단위: %, 원, 엔, p, 달러)

구분	2016년말	4/19(수)	4/20(목)	4/21(금)	4/24(월)	4/25(화)
회사채 (AA-)	2.14	2.18	2.19	2.20	2.22	2.20
회사채 (BBB-)	8.27	8.40	8.41	8.42	8.43	8.42
국고채 (3년)	1.64	1.67	1.67	1.68	1.70	1.67
국고채 (5년)	1.80	1.83	1.84	1.85	1.88	1.86
국고채 (10년)	2.08	2.14	2.14	2.16	2.20	2.19
미 국채 (10년)	2.56	2.21	2.23	2.24	2.27	-
일 국채 (10년)	0.06	0.01	0.02	0.01	0.02	-
원/달러	1,210.50	1,140.20	1,139.80	1,134.40	1,129.90	1,125.40
원/100엔	1,030.04	1,048.85	1,045.40	1,039.59	1,027.46	1,020.49
엔/달러	117.52	108.71	109.03	109.12	109.97	110.28
달러/유로	1.05	1.07	1.07	1.06	1.08	1.08
DDR3 1Gb (1333MHz)	1.15	1.20	1.20	1.20	1.09	-
DDR3 2Gb (1333MHz)	1.50	1.84	1.84	1.83	1.83	-
NAND Flash 16Gb (MLC)	1.87	2.21	2.25	2.24	2.33	-
CRB 지수	193.97	185.44	184.56	181.87	180.93	-
LME 지수	2,663.2	2,718.2	2,761.6	2,748.1	2,760.6	-
BDI	961	1,278	1,243	1,195	1,170	-
유가 (WTI, 달러/배럴)	53.90	50.44	50.27	49.62	49.23	-
금 (달러/온스)	1,131.35	1,279.05	1,282.10	1,281.85	1,269.40	-

자료: Bloomberg, KOSCOM, 한국투자증권

한 눈에 보는 증시 일정

월	화	수	목	금
17	18	19	20	21
中> 1Q GDP YoY (6.9%, 6.8%, 6.8%) 유럽> 영국,독일 휴장(Easter Monday)	美> 3월 주택착공건수(천건) (1215, 1250, 1288) 3월 광공업생산 MoM (0.5%, 0.5%, 0.1%)	美> 베이지북 발표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 (-1.8%, n/a, 1.5%) 유럽> 3월 CPI YoY (1.5%, 1.5%, 1.5%)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244, 240, 234) 3월 선행지수 (0.4%, 0.2%, 0.6%) 유럽> 4월 소비자대지수 (-3.6, -4.8, -5.0)	美> 4월 마켓 제조업 PMI (52.8, 53.5, 53.3) 3월 기존주택매매(백만) (5.71, 5.60, 5.48) 日> 4월 닛케이 PMI 제조업 (52.8, n/a, 52.4) 2월 3차 산업 지수 MoM (0.2%, 0.3%, 0.0%) 유럽> 프랑스 1차 대선(23일) 4월 마켓 제조업 PMI (56.8, 56.0, 56.2)
24	25	26	27	28
	美> 4월 소비자대지수 (n/a, 123.0, 125.6) 3월 신규주택매매(천건) (n/a, 584, 592)	美>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 (n/a, n/a, -1.8%) 日> 2월 전체산업활동지수 MoM (n/a, 0.6%, 0.1%)	韓> 1Q GDP YoY (n/a, 2.6%, 2.4%)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n/a, 243, 244) 3월 내구재 주문 (n/a, 1.3%, 1.8%) 3월 도매 재고 MoM (n/a, 0.3%, 0.4%) 유럽> ECB 기준금리결정 (n/a, -0.4%, -0.4%)	美> 1Q GDP YoY (n/a, 1.1%, 2.1%) 日> 3월 광공업생산 MoM (n/a, -0.8%, 3.2%) 3월 실업률 (n/a, 2.9%, 2.8%) 3월 CPI YoY (n/a, 0.3%, 0.3%) 유럽> 3월 M3 통화공급 YoY (n/a, 4.7%, 4.7%)
1	2	3	4	5
韓> 4월 수출 YoY (n/a, n/a, 13.7%) 美> 3월 개인소득 (n/a, 0.3%, 0.4%) 4월 마켓 제조업 PMI (n/a, n/a, 52.8) 4월 ISM 제조업 (n/a, 56.6, 57.2) 3월 건설지출 MoM (n/a, 0.4%, 0.8%) 中> 4월 제조업 PMI(30일) (n/a, n/a, 51.8) 日> 4월 닛케이 PMI 제조업 (n/a, n/a, 52.8)	韓> 4월 CPI YoY (n/a, n/a, 2.2%) 4월 닛케이 PMI 제조업 (n/a, n/a, 48.4) 유럽> 4월 마켓 제조업 PMI (n/a, n/a, 56.8) 中> 4월 차이신 PMI 제조업 (n/a, n/a, 51.2)	美> FOMC 금리결정 (n/a, 1.00%, 1.00%)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 (n/a, n/a, n/a) 4월 ADP 취업자변동(천명) (n/a, 170, 263) 유럽> 1Q GDP YoY (n/a, n/a, 1.7%)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n/a, n/a, n/a) 3월 무역수지(십억달러) (n/a, -45.2, -43.6) 3월 제조업주 (n/a, n/a, 1.0%) 3월 내구재주문 (n/a, n/a, n/a)	美> 4월 비농업고용자수 변동(천명) (n/a, 180, 98) 3월 실업률 (n/a, 4.6%, 4.5%)

☞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 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입)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기업 공식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표시는 한국시간 당일 야침)

